

『東醫壽世保元』과 『格致藁』의 四象構造에 對한 考察

김경수·이수경·이의주·고병희·송일병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A Study for Sasang Structure about 『Dongyi Suse Bowon』 and 『Gyukchigo』

Kim Kyung-Su·Lee Soo-Kyung·Lee Eui-Ju·Koh Byung-Hee·Song Il-Byung

Dept.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1. Objectives

This paper was tried to find out Dong-Mu's recognition system for Sasang Structure about 『Dongyi Suse Bowon』 and 『Gyukchigo』

2. Methods

The study was researched through comparative studying in a structural manner between 『Gyukchigo』's Affairs-Mind-Body-Objects(事心身物) and 『Dongyi Suse Bowon』's Heaven-Human-Nature-Order(天人性命).

3. Results and Conclusions

『Gyukchigo』's Affairs-Mind-Body-Objects(事心身物) should be understood as Dong-Mu's change process of thinking scheme before writing the book of 『Dongyi Suse Bowon』 and it is somewhat difficult to make a connected attachment in a lump between 『Dongyi Suse Bowon』's Heaven-Human-Nature-Order(天人性命) and 『Gyukchigo』's Affairs-Mind-Body-Objects(事心身物). Just 『Dongyi Suse Bowon』's Heaven-Human-Nature-Order(天人性命) can be understood as a new recognition system to encompass 『Gyukchigo』's Affairs-Mind-Body-Objects(事心身物).

Key Words: Heaven-Human-Nature-Order(天人性命) Affairs-Mind-Body-Objects(事心身物)

I. 緒 論

사회 구성원의 수명연장에 따른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사회 곳곳에서 단순한 수명연장이라기 보다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서양의학중심의 일방적 의료에서 나타난 일부의 부작용들을 보완하고자 대체의학이나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內經』에서 『東醫寶鑑』에 이르는 전통적인 東洋思想인 五行과 天人相應

關係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證治醫學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네 가지의 체질을 타고나며 각 체질마다 生理·病理的인 특징이 다르다는 四象醫學이 개체성을 더 중시하며 맞춤의학으로서 더 빛을 발하고 있다. 하지만 四象醫學에서는 체질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체질의 진단을 위해 東武 李濟馬(1837~1900, 이하 '東武'로 약칭)는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辨證의 기준을 外形 性質 才幹 證등을 제시하고, “人物形容仔細商量 再三推移 如有迷惑則 參互病證 明見無疑然後 可以用藥”이라 하여 人物形容이 體質 辨證의 우선적 근거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기준으로는 體形氣像과 容貌詞氣를 제시하고 있다¹.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체질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체질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접수일 2004년 7월 10일; 승인일 2004년 8월 10일

교신저자 : 교신저자 : 송일병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1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82-2-958-9232, Fax: +82-2-958-9234

E-mail: ibsong@khmc.or.kr

사실이다. 이에 체질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단하는 관찰자의 四象醫學의 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주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객관적지표(체질분류검사지²⁻⁷)를 활용하기도 한다. 四象醫學 원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東醫壽世保元』과 『格致藁』의 原理論에 대한 기존의 연구⁸⁻¹⁴ 중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과 『格致藁』의 事心身物에 대한 四象構造論의 연구에 있어서는 다소 혼란이 있어 著者는 本考에서 먼저 『東醫壽世保元』의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에서 天人性命의 四象構造를 論據¹⁾ 하고, 이어서 『格致藁』의 事心身物과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을 構造論의 으로 비교²⁾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1. 條文番號

- 1) 『東醫壽世保元』의 條文번호는 「辛丑本」(『四象醫學』¹⁶) 條文번호를 사용하였다.
- 2) 『格致藁』의 條文번호는 『東武格致藁譯解』¹⁷의 條文번호를 사용하였다.
- 3)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條文번호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¹⁸의 條文번호를 사용하였으며 이하 『四象草本卷』으로 약칭한다.
2. 『東醫壽世保元』의 四象構造는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順으로, 『格致藁』는 「儒略」 「反誠箴」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과 『格致藁』의 事心身物를 連結 配屬함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부분을 각자의 著書와 論文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였다.
3. 本考에서는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의 四象構造와 『格致藁』의 事心身物을 비교하여 考察함이 목적이므로 四象構造와 연관이 없는 부분은 論外로 한다.

1) 四象構造論에 관한 사상학회지 및 주요저서 중 「擴充論」에 대한 연구는 許⁸가 있으며, 本考에서는 「性命論」과 「擴充論」을 사상구조론적으로 배속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四象構造論에 관한 사상학회지 및 주요저서 중 事心身物과 天人性命에 대한 構造論의 차이를 각각의 論者들의 주장을 서로 비교 고찰함

III. 本論

1. 『東醫壽世保元』에서의 四象構造

『東醫壽世保元』은 편의상 크게 原理篇과 生理篇, 그리고 臨床篇과 廣濟說의 넷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原理篇은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등으로 구분하고, 「性命論」에서 사상의학의 기본개념인 天人性命의 四象構造를 밝히고, 「四端論」에서 哀怒喜樂 性情의 相成- 相資의 원리와 順動- 逆動의 원리를 통하여 臟腑의 大小에 의한 四象人의 성립의 당위성을 밝히고, 「擴充論」에서 四象人이 갖는 性情의 特徵 및 반성하고 경계할 조건을 제시하여 中庸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³⁾.

- 1) 「性命論」 「性命論」⁴⁾은 사상의학의 四象哲學觀이라 볼 수 있는 의학의 철학적 근거를 논하고 있다. 天機 人事의 우주론으로 시작하여 責心 責氣의 윤리론으로 끝맺고 있다⁵⁾. 이를 도표화 하면 Table 1.⁶⁾과 같다.

Table 1. The sasang structure of Heaven-Human-Nature-Order in Discourse on Nature and Order(性命論)

天	天時 耳	世會 目	人倫 鼻	地方 口
人	事務 肺	交遇 脾	黨與 肝	居處 腎
性(知)	籌策 頷	經綸 臆	行檢 臍	度量 腹
命(行)	識見 頭	威儀 肩	材幹 腰	方略 臀

Table 1.에서 보면 天人性命의 四象構造와 16人

- 3) 조항성. 사상의학의 원리와 방제. 집문당, 서울, 2003:15.
- 4) 1-1 天機有四 一曰地方 二曰人倫 三曰世會 四曰天時.
 1-2 人事有四 一曰居處 二曰黨與 三曰交遇 四曰事務.
 1-7 頷有籌策 臆有經綸 臍有行檢 腹有度量.
 1-9 頭有識見 肩有威儀 腰有材幹 臀有方略.
 1-11 耳目鼻口觀於天也 肺脾肝腎立於人也 頷臆臍腹行其知也 頭肩腰臀行其行也.
 1-12 天時大同也 事務各立也 世會大同也 交遇各立也 人倫大同也 黨與各立也 地方大同也 居處各立也.
 1-13 籌策博通也 識見獨行也 經綸博通也 威儀獨行也. 行檢博通也 材幹獨行也 度量博通也 方略獨行也.
 1-14 大同者天也 各立者人也 博通者性也 獨行者命也.
- 5) 김경요 홍순용. 동의수세보원중 성명론에 대한 연구. 사상학회지. 1989;1(1):26.
- 6) 송일병 외.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1997: 68.

體部位⁷⁾를 『格致藁』에서 事心身物的 屬性을 가지고 있는 16用語(이하 ‘16用語’⁸⁾로 약칭)에 배속하여 四象構造를 설명하고 있다. Table 1.에서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은 「性命論」에서는 아직 太少陰陽人의 四象人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즉 ‘四象人’ 과 ‘16人體部位’ 와 ‘16用語’ 에 대한 각각의 연결배속은 아직 ‘未定の 狀態’ 이므로 Table. 1은 『東醫壽世保元』에 있는 天人性命 四象構造의 완성편은 아니다. 완성은 뒤의 「擴充論」에서 이루어 진다. (Table 4.)

2) 「四端論」

「四端論」⁹⁾에서 四象人의 명칭을 ‘太少陰陽人’ 으로 규정하고 네 체질의 차등성을 설명하고 있다¹⁰⁾. 사상인의 명칭은 『格致藁』는 물론이고 「性命論」에서도 나오지 않으며 「四端論」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太少陰陽人’ 에 대한 문구가 나온다. 이어서 哀怒喜樂 性情의 相成- 相資의 원리와 順動- 逆動의 원리를 통하여 臟腑의 大小에 의한 사상인의 성립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 「四端論」에서는 肺脾肝腎¹¹⁾을 제외하고는 天人性命의 四象構造나 『格致藁』의 事

7)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나오는 天人性命에 배속되는 인체의 耳目鼻口 肺脾肝腎 額臆臍腹 頭肩腰腎등의 부위 명칭으로 편의상 ‘16人體部位’ 라고 한다.

8)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天人性命의 각 段에 쓰이고 있는 ‘天時 世會 人倫 地方·事務 交遇 黨與 居處·籌策 經綸 行檢 度量·識見 威儀 材幹 方略’ 를 지칭하며, 이는 『格致藁』의 事心身物的 속성을 갖고 있는 용어로 이를 편의상 ‘16用語’ 라 한다.

9) 2-1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名曰太陽人 肝大而肺小者名曰太陰人 脾大而腎小者名曰少陽人 腎大而脾小者名曰少陰人.

2-2 人趨心慾 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名曰鄙人 棄義而偷逸者名曰懦人 棄智而飾私者名曰薄人 棄仁而極慾者名曰貪人.

2-10 太陽人 哀性遠散而怒情促急 哀性遠散則氣注肺而肺益盛 怒情促急則氣激肝而肝益削 太陽之臟局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 怒性宏抱而哀情促急 怒性宏抱則氣注脾而脾益盛 哀情促急則氣激腎而腎益削 少陽之臟局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 喜性廣張而樂情促急 喜性廣張則氣注肝而肝益盛 樂情促急則氣激肺而肺益削 太陰之臟局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 樂性深確而喜情促急 樂性深確則氣注腎而腎益盛 喜情促急則氣激脾而脾益削 少陰之臟局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10) 송일병 외.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1997: 59.

11) 「四端論」에서의 肺脾肝腎의 용어는 ‘16인체부위’ 중의 人事에 해당하는 肺脾肝腎이라기 보다는 ‘인체를 상징적으로 포괄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

心身物的 屬性을 내포한 ‘16用語’ 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거의 없다. (Table 2.)

Table 2. Discourse on Four Principles(四端論)'s TaeSoEumYang sasang human(太少陰陽四象人)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肺大肝小	脾大腎小	肝大肺小	腎大脾小

3) 「擴充論」

「擴充論」¹²⁾은 「性命論」에서의 ‘天人性命’ 과 ‘16人體部位’ 와 ‘事心身物的 屬性을 內包한 16用語’ 를 「四端論」에서의 太少陰陽 四象人에 논리적으로 결합하여 四象人의 天人性命의 四象構造를 완성한다. 우선 「擴充論」에서 四象構造論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문이 3-2, 3-3, 3-16, 3-17이고, 이를 조문별로 풀어 설명¹³⁾하고

12) 3- 2 太陽之耳 能廣博於天時 而太陽之鼻 不能廣博於人倫 少陽之目 能廣博於世會 而少陽之口 不能廣博於地方 太陰之鼻 能廣博於人倫 而太陰之耳 不能廣博於天時 少陰之口 能廣博於地方 而少陰之目 不能廣博於世會.

3- 3 太陽之脾 能勇統於交遇 而太陽之肝 不能雅立於黨與 少陽之肺 能敏達於事務 而少陽之腎 不能恒定於居處 太陰之腎 能恒定於居處 而太陰之肺 不能敏達於事務 少陰之肝 能雅立於黨與 而少陰之脾 不能勇統於交遇.

3-16 太陽之臍 宜戒伐心 太陽之臍 若無伐 心 絕世之行檢 必在此也 少陽之腹 宜戒夸 心 少陽之腹 若無夸心 絕世之度量 必在此 也 太陰之額 宜戒驕心 太陰之額 若無驕心 絕世之籌策 必在此也 少陰之臆 宜戒矜心 少陰之臆 若無矜心 絕世之經綸 必在此也.

3-17 太陽之腎 宜戒竊心 太陽之腎 若無竊 心 大人之方略 必在此也 少陽之腰 宜戒懶 心 少陽之腰 若無懶心 大人之材幹 必在此 也 太陰之肩 宜戒侈心 太陰之肩 若無侈心 大人之威儀 必在此也 少陰之頭 宜戒奪心 少陰之頭 若無奪心 大人之識見 必在此也.

13) 3-2조문의 太陽之耳 能廣博於天時 而太陽 之鼻 不能廣博於人倫는 太陽人의 天機인 耳는 天時에 能하고 太陽人의 鼻는 人倫에는 能하지 못하다. 즉 太陽人과 太陰人의 好善에서 玆구를 설명하고 있는 문구다. 少陽之目 能廣博於世會 而少陽之口 不能廣 博於地方는 少陽人의 天機인 目은 世會에 能하고 少陽人의 口는 地方에는 能하지 못 하다. 즉 少陽人과 少陰人의 好善에서 玆구를 설명하고 있는 문구다. 太陰之鼻 能廣博於人倫 而太陰之耳 不能廣博於天時는 太陰人의 天機인 鼻는 人倫에 能하고 太陽 人의 耳는 天時에는 能하지 못하다. 즉 太 陰人과 太陽人의 好善에서 玆구를 설명하고 있는 문구다. 少陰之口 能廣博於地方 而少陰之目 不能廣博於世會는 少陰人의 天機인 口는 地方에 能하고 少陽人의 目은 世會에는 能하지 못하다. 즉 少陰人과 少 陽人의 好善에서 玆구를 설명하고 있는 문구다.

3-3조문의 太陽之脾 能勇統於交遇 而太陽之肝 不能雅立於黨與는 太陽人의 人事인 脾는 交遇에 能하고 太陽人의 肝은 黨與(少陰人의 人事인 肝)에는 能하지 못하다. 즉 太陽人과 少陰人의 惡惡에서 玆구 를 설명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여기에서 Table 3.을 보면 3-2조문은 太陽人의 天機인 耳는 天時에, 少陽人의 天機인 目은 世會에, 太陰人의 天機인 鼻는 人倫에, 少陰人의 天機인 口는 地方에 능하다. 그리고 太陽人과 太陰人,

하고 있는 문구다. 少陽之肺 能敏達於事務 而少陽之腎 不能恒定於居處는 少陽人의 人事인 肺는 事務에 能하고 少陽人의 腎은 居處(太陰人의 人事인 腎)에는 能하지 못하다. 즉 少陽人과 太陰人의 惡惡에서 鬻구를 설명하고 있는 문구다. 太陰之腎 能恒定於居處 而太陰之肺 不能敏達於事務는 太陰人의 人事인 腎은 居處에 能하고 太陰人의 肺는 事務(少陽人의 人事인 肺)에는 能하지 못하다. 즉 太陰人과 少陽人의 惡惡에서 鬻구를 설명하고 있는 문구다. 少陰之肝 能雅立於黨與 而少陰之脾 不能勇統於交遇는 少陰人의 人事인 肝은 黨與에 能하고 少陰人의 脾는 交遇(太陽人의 人事인 脾)에는 能하지 못하다. 즉 少陰人과 太陽人의 惡惡에서 鬻구를 설명하고 있는 문구다.

3-16조문의 太陽之臍 宜戒伐心 太陽之臍 若無伐心 絕世之行檢 必在此也는 太陽人의 臍에는 伐心이라는 邪心이 發하기 쉬운데 存其心養其性하여 伐心이 없으면 絕世의 行檢이 나온다. 즉 太陽人의 博通(行其知)을 行檢으로 설명하는 문구다. 少陽之腹 宜戒夸心 少陽之腹 若無夸心 絕世之度量 必在此也는 少陽人의 腹에는 夸心이라는 邪心이 發하기 쉬운데 存其心養其性하여 夸心이 없으면 絕世의 度量이 나온다. 즉 少陽人의 博通(行其知)을 度量으로 설명하는 문구다. 太陰之頷 宜戒驕心 太陰之頷 若無驕心 絕世之籌策 必在此也는 太陰人의 頷에는 驕心이라는 邪心이 發하기 쉬운데 存其心養其性하여 驕心이 없으면 絕世의 籌策이 나온다. 즉 太陰人의 博通(行其知)을 籌策으로 설명하는 문구다. 少陰之臆 宜戒矜心 少陰之臆 若無矜心 絕世之經綸 必在此也는 少陰人의 臆에는 矜心이라는 邪心이 發하기 쉬운데 存其心養其性하여 矜心이 없으면 絕世의 經綸이 나온다. 즉 少陰人의 博通(行其知)을 經綸으로 설명하는 문구다. 이러한 頷臆臍腹의 驕夸伐夸의 邪心을 경계하면 絕世의 籌策 經綸 行檢 度量이 나온다.

3-17조문의 太陽之腎 宜戒竊心 太陽之腎 若無竊心 大人之方略 必在此也는 太陽人의 腎에는 竊心이라는 怠心이 發하기 쉬운데 修其身立其命하여 竊心이 없으면 大人의 方略이 나온다. 즉 太陽人의 獨行(行其行)을 方略으로 설명하는 문구다. 少陽之腰 宜戒懶心 少陽之腰 若無懶心 大人之材幹 必在此也는 少陽人의 腰에는 懶心이라는 怠心이 發하기 쉬운데 修其身立其命하여 懶心이 없으면 大人의 材幹이 나온다. 즉 少陽人의 獨行(行其行)을 材幹으로 설명하는 문구다. 太陰之肩 宜戒侈心 太陰之肩 若無侈心 大人之威儀 必在此也는 太陰人의 肩에는 侈心이라는 怠心이 發하기 쉬운데 修其身立其命하여 侈心이 없으면 大人의 威儀가 나온다. 즉 太陰人의 獨行(行其行)을 威儀으로 설명하는 문구다. 少陰之頭 宜戒奪心 少陰之頭 若無奪心 大人之識見 必在此也는 少陰人의 頭에는 奪心이라는 怠心이 發하기 쉬운데 修其身立其命하여 奪心이 없으면 大人의 識見이 나온다. 즉 少陰人의 獨行(行其行)을 識見으로 설명하는 문구다. 이러한 頭肩腰腎의 奪侈懶竊의 怠心을 경계하면 大人의 識見 威儀 材幹 方略이 나온다.

Table 3. 'Sasang human' and '16 human body parts' and '16 terms' in the Discourse on Establishment and Supplement(擴充論)

條文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3-2	太陽之耳 能廣博於天時	少陽之目 能廣博於世會	太陰之鼻 能廣博於人倫	少陰之口 能廣博於地方
3-3	太陽之脾 能勇統於交遇	少陽之肺 能敏達於事務	太陰之腎 能恒定於居處	少陰之肝 能雅立於黨與
3-17	太陽之腎 大人之方略(竊)	少陽之腰 大人之材幹(懶)	太陰之肩 大人之威儀(侈)	少陰之頭 大人之識見(奪)
3-16	太陽之臍 絕世之行檢(伐)	少陽之腹 絕世之度量(夸)	太陰之頷 絕世之籌策(驕)	少陰之臆 絕世之經綸(矜)

少陽人과 少陰人이 각각 好善에서 鬻구를 이룬다. 3-3조문은 太陽人의 人事인 脾는 交遇에, 少陽人의 人事인 肺는 事務에, 太陰人의 人事인 腎은 居處에, 少陰人의 人事인 肝은 黨與에 능하다. 그리고 太陽人과 少陰人, 少陽人과 太陰人이 각각 惡惡에서 鬻구를 이룬다. 3-16조문은 太陽人의 臍에 伐心이 없으면 絕世의 行檢이, 少陽人의 腹에 夸心이 없으면 絕世의 度量이, 太陰人의 頷에 驕心이 없으면 絕世의 籌策이, 少陰人의 臆에 矜心이 없으면 絕世의 經綸이 나온다. 이는 行其知의 博通을 설명하는 조문이다. 3-17조문은 太陽人의 腎에 竊心이 없으면 大人의 方略이, 少陽人의 腰에 懶心이 없으면 大人의 材幹이, 太陰人의 肩에 侈心이 없으면 大人의 威儀가, 少陰人의 頭에 奪心이 없으면 大人의 識見이 나온다. 이는 行其行의 獨行을 설명하는 조문으로 太陽과 少陰, 太陰과 少陽을 대비하여 설명¹⁴⁾하는 조문이다.

앞서 밝힌대로 「性命論」에서는 天人性命의 四象構造는 있으나 사상인에 대한 言及은 없고, 「四端論」에서 비로서 太少陰陽의 四象人을 명명하였다. 그리하여 「擴充論」에서 상기 Table 3.과 같은 구조로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14) 頭有識見 肩有威儀 腰有才幹 腎有方略
頭之賦海 神之所舍也 神之爲氣 光明而鑑造化 自有識見 則此句之論 太陽人言而特學少陰人言者 蓋少陰出於太陽而奪其母神故也 肩之膜海 靈之所舍也 靈之爲氣 嚴肅而酷態度 自有威儀 則此句之論 少陽人言而特學太陰人言者 蓋太陰生少陽而假其子靈故也 腰之血海 魂之所舍也 魂之爲氣 顯達而奇行裝 自有材幹 則此句之論 太陰人言而特學少陽人言者 蓋少陽出於太陰而憑其母魂故也 腎之精海 魄之所舍也 魄之爲氣 盛大而壯經營 自有方略 則此句之論 少陰人言而特學太陽人言者 蓋太陽生少陰而恃其子魄故也 然則以我之短 學彼之長 以我之長 教彼之短 同是助成功歸正 故曰 無奪無侈無懶無竊之謂也 「東武遺藁」

이를 Table 1.과 연계하여 간단하게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Table 4. Combinations of 「Discourse on Nature and Order (性命論)」 and 「Discourse on Four Principles(四端論)」 and 「Discourse on Establishment and Supplement(擴充論)」

性命論의 天人性命	「擴充論」의 '四象人' 과 '16人體部位' 와 '16用語' 配屬			
天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大同	天時	世會	人倫	地方
人	太陽之耳	少陽之目	太陰之鼻	少陰之口
各立	交遇	事務	居處	黨與
命	太陽之脾	少陽之肺	太陰之腎	少陰之肝
獨行	方略(竊)	材幹(懶)	威儀(侈)	識見(奪)
性	太陽之臀	少陽之腰	太陰之肩	少陰之頭
博通	行檢(伐)	度量(夸)	籌策(驕)	經綸(矜)
	太陽之臍	少陽之腹	太陰之頤	少陰之臆

그리하여 「性命論」에 있는 사상인을 포함하지 않은 天人性命 四象構造(Table 1.)가 「四端論」에서 사상인을 명명하고 「擴充論」을 통하여(Table 3.) 사상인을 포함한 天人性命 四象構造(Table 4.)로 연결배속이 완성된다고 본다.

2. 「格致藁」에서의 四象構造

『格致藁』는 인간과 사회, 그리고 주변세계에 관해 유학에서 추구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자신만의 독창적 방법과 시각으로 재해석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儒略」 「反誠箴」 「獨行篇」 등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가 44세 되던 해부터 57세에 『東醫壽世保元』 집필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10여년에 걸쳐 완성해 나간 점으로 볼 때 『格致藁』는 『東醫壽世保元』에서 사상의학의 원리론을 형성하는 철학적 기초가 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¹⁵⁾

1) 「儒略」

「儒略」의 내용은 四象, 즉 事心身物의 개념적 규정을 통하여 기존의 儒學에서 추구하던 제반 문제와 철학적 개념들을 東武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재규정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事心身物을 四象이라고 한 것은 「反誠箴」 말미에, “太極 心也 兩儀 心身也 四象 事心身物也”라고 규정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보다 10여 년 전에 씌어진 「儒略」의 첫머리에 事心身物 상호간의 관계 규정을 비롯하여 각각의 개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儒略」을

집필할 무렵에는 이미 東武의 四象學說이 정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⁵⁾. 「儒略」은 44세에 집필을 시작하여 54세에 완성했다. 「儒略」은 事物 觀仁 志貌 天下 四戒 天勢 天時 天下 索我 我止 土氓 遊世箴 大風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事心身物에 대한 四象構造는 「儒略事物」에 잘 나타나 있다 (Table 5.¹⁶⁾)

Table 5. Summary of 『Gyukchigo』 「YuryakSamul (儒略事物)」

太極	兩儀	三才	四象	自體屬性	存在樣式	外延數	個別四端	八條目
中	陽	天	事	誠決	智散	大萬	聽視言貌事四端也	治平
				心	慧覺	禮聚	小一	學問思辨心四端也
	陰	身	能行	義群	近一	伸收放屈身四端也	誠正	
				地物	勤止	仁居	遠萬	意慮膽志物四端也

2) 「反誠箴」

「反誠箴」의 내용은 東武가 「反誠箴」의 머리 부분에, “篇名을 反誠이라 한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 늙은 때까지도 千思萬慮에 詐心이 무궁하여 詐를 행하면 항상 낭패하고 더욱 더 困屈해지니 부득이 ‘反於誠’ 하여 自警계 함이다” 라 하였듯이 ‘誠’의 정신을 강조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反誠箴」의 내용에서 기본적 주제로 삼았던 性命과 道德, 知行的 문제는 그대로 『東醫壽世保元』의 「性命論」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같은 것이고, 그 내용 또한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은 「反誠箴」을 완성한 해(동무57세)에 『東醫壽世保元』을 집필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참작할 때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음을 알 수 있다¹⁵⁾. 동무 57세에 「反誠箴」을 저술하고 다음 해인 58세에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였다.

『格致藁』의 「反誠箴」에서 事心身物 四象構造를 가장 잘 설명하는 곳이 「反誠箴異箴」의 9-34, 37, 39조문¹⁷⁾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6) 지규용. 동무격치고역해. 영림사, 서울, 2001:39.
 17) 3-37 易曰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 太極 心也 兩儀 心身也 四象 事心身物也 八卦 事有事之終始 物有物之本末 心有 心之緩急 身有 身之先後 乾事之始也 兌事之終也 坤物 之本也 艮物之末也 離心之急圖也 震心之緩圖也 坎身之先着也 巽身之後着也
 9-39 太極之心 中央之心也 心身之心 兩儀 之心也

15) 송일병 외.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1997:40-42.

(Table. 6, 八卦箴總說)

Table 6. Affairs-Mind-Body-Objects(事心身物) of 『Gyukchigo』 「Bansung Jam Chapter(反誠箴)」

太極	兩儀	四象	八卦
心	心	事心	事之始終(乾兌) 心之急緩(離震)
	身	身物	身之後先(巽坎) 物之末本(艮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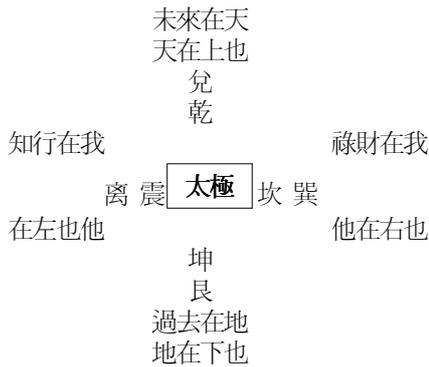


Fig 1. Palguaeagamchongsul(八卦箴總說) 18)

3) 『獨行篇』

『獨行篇』은 東武가 46세 되던 해(1882, 壬午)에 완성된 것으로 그의 여러 저술중 초기의 것이다. 『獨行篇』은 주로 ‘知人’의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¹⁵⁾, 本考에서 논하고자 하는 四象構造論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관계로 생략한다.

3.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과 『格致藁』의 事心身物에 대하여

1) 『格致藁』에서의 事心身物

事心身物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비롯한 사회 및 우주를 이해하고자 하는 四類型의 인식체계를 말한다. 기존 東洋醫學에서 五行의 분류체계가 ‘자연의 질서’를 기준으로 한 인식체계라 한다면, 事心身物은 ‘인간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삼아 이를 외부의 사물 및 사회현상에 빚대어 설명하는 인간중심적 인식체계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인

事心身物之心 四象之心也..

18) 지규용. 동무격치고역해. 영림사, 서울, 2001:372. 乾坤離坎箴之情僞 我必行欺詐於人之機勢也 存心之戒也 艮兌震巽箴之情僞 人必行欺詐於我之機勢也 守身之戒也

식하에 바탕을 둔 四類型의 분류체계를 事心身物이라 하며 그 단서를 인간개체의 정신적·기능적(구조적) 특성에서 찾았으며 이를 事心身物의 四端이라 하고, 이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분석요소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을 분석하는 척도로 사용되었다¹⁹⁾. 하지만 『反誠箴』의 9-34 ‘八卦箴總說’과 9-37 ‘..太極 心也 兩儀 心身也 四象 事心身物也.. 八卦 事有事之終始 物有物之本末 心有心之急急 身有身之後先..’에서 太極과 心身과 事心身物의 배속에서는 기존의 논문이나 저서⁸⁻¹⁵⁾에서 각각 약간의 혼란이 있어 이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宋²¹⁾의 論考

Table 7. Paper written by Song²⁰⁾ about The Morpho-Imaginary Viewpoints of Dongmu in the 『Sasang Chobonguen(四象草本卷)』

裡理		表象	
太極	兩儀	四象	四象
人性人形 (有物有則)	性-知 (性用)	舒(決) 卷(覺)	決-聽視言貌 覺-學問思辨
	形-行 (形用)	進(動) 退(止)	動-伸收放屈 止-意心魂魄

Table 8. Paper written by Song²¹⁾ about Affairs-Mind-Body-Objects(事心身物) of 『Gyukchigo』 「Bansung Jam(反誠箴)」

裡理		表象	
太極	兩儀	四象	四象
心	心	事心	事之始終(乾兌) 物之末本(艮坤)
	身	身物	心之急緩(離震) 身之後先(巽坎)

Table 7.의 『四象草本卷』 「原人·第四統」²⁰⁾에 대해서는 각각의 論者가 모두 일치한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서로 비교분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또한 Table 7.은 『格致藁』에서의 事心身物의 四象構造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고

19) 조황성. 사상의학의 원리와 방제. 집문당, 서울, 2003:22-27.

20) 『四象草本卷』 「原人·第四統」
4-4 天生萬物 有物有則 人形物也 人性則也 以人形其人性 有物有則 一而不二者 謂之太極
4-5 性有用性 性用知也 形有用形 形用行也 一知一行 一生一成 易簡相得者 謂之兩儀
4-6 知有舒卷 舒而決 卷而覺也 行有進退 進而動 退而止也 一洪一覺 一動一止 一舒一卷 一進一退 變靜動化者 謂之四象
4-7 止有四象 魂魄心意也 動有四象 屈放收伸也 覺有四象 辨思問學也 決有四象 貌言視聽也

본다. 그러나 Table 8.의 宋²¹⁾의 ‘事心身物의 四象의 形象觀’에서는 裡理에서는 ‘事心身物’ 順으로 배속하였으나 表象에서는 ‘事物心身’ 順으로 배속하여 『四象草本卷』의 (Table 7.)배속과는 기본구도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이를 「反誠箴」 9-37 조문의 Table 6.과 비교하면 ‘事心身物’ 과 ‘事物心身’ 의 배속 차이가 난다.

▶李²²⁾의 論考

『格致藁』 「反誠箴」에 있는 3-34조문의 ‘八卦箴總說’에서 四象은 事心身物로 身을 축으로 天과 地가 上下로 구분되고 心을 축으로 他와 我가 左右로 구분된다. 天은 身의 上으로 乾兌가 上에 거하고, 他是 心의 右로 坎巽이 右에 거하고, 我是 心의 左로 離震이 左에 거하고, 地는 身의 下로 坤艮이 下에 거한다. 그리하여 東武는 四象을 ‘事物’ 의 페러다임과 ‘心身’ 의 페러다임을 결합하여 우주 만물의 드러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²²⁾. 이러한 論考는 뒤에 나오는 天人性命과의 연결배속을 Fig 2.로 정리하고 있다.

▶宋²³⁾의 論考

『格致藁』에서의 본체론적 사상개념인 事心身物은 氣의 분화양태에 따라 事心身物의 順序로 기체상태에서 고체상태로, 4차원에서 1차원으로 보고 또 氣의 분화상으로 事와 心은 形而上者에 해당하고 身과 物은 形而下者에 해당한다고 보아 事는 形而上, 心은 形而中上, 身은 形而中下, 物은 形而下로 표현하였다²³⁾. 즉 Table 6.과 같이 배속하였다. 그러나 『格致藁』의 事心身物과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에서의 연결배속은 Table. 11과 같이 배속을 하여 趙¹⁹⁾(Table 12.)와는 다른 시각으로 분류하였다. 즉, 『格致藁』의 事心身物의 분류에서만 趙¹⁹⁾와 유사하다.

▶趙¹⁹⁾의 論考

Table 9. Jo¹⁹⁾'s Argument about Affairs-Mind- Body-Objects(事心身物) of 『Gyukchigo』 「Bansung Jam(反誠箴)」

太極 兩儀		四象
知 (정신)	事 (決)	선형적 결정론적인 세계 聽視言貌의 감각기능을 통한 인지능력(天時,世會,人倫,地方)으로 발현
	心 (覺)	나만의 사회적 특성, 他人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覺의세계 學問思辨 (事務,交遇,黨與,居處)으로 발현
行 (육체)	身 (動)	운명적 본능적 동물적인 行의 요소 伸收放屈이란 動的 현상으로 발현
	物 (止)	자율적인 동시에 內在的, 未來指向的인 止의 요소 意慮臆志란 靜中動的 현상으로 발현

인간을 정의하는 事心身物이라는 四類型의 인식체계는 크게는 인간을 知(事-心)와 行(身-物)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知는 곧 事(決)와 心(覺)으로, 行은 곧 身(動)과 物(止)로 나타나고, 이와같은 動하고 靜하는 변화를 四象이라 하였다. (Table 12.) 그러므로 東武의 四象은 인간을 포함한 事物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수단으로서의 四象이므로 易의 四象과는 그 의미를 달리하며, 이 논리가 의학에 적용시 知는 인간 내부의 心的 바탕인 性情의 의미가 決(性-耳目鼻口)과 覺(情-肺脾肝腎)으로 배속되고, 行은 知(頷臆臍腹)와 行(頭肩腰臀)으로 배속되어 정신과 육체의 상호 관련성을 밝히는 심신의학으로 발전한다.¹⁹⁾ (이는 Table 6., Table 7.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9.와 같다.

2) 『格致藁』의 事心身物과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에서의 연결배속 비교

▶宋²¹⁾의 論考

Table 10. A connected attachment between Heaven-Human-Nature-Order(天人性命) and Affairs-Mind-Body-Objects(事心身物) in Song²⁵⁾'s paper.

先天的 (天賦的)	天 (物)	人間 外在的 要素	時間的 構成的	天	事	上
後天的 (自律的)	人 (己)	人間 內在的 要素	空間的 技能的	性/知	心	左
				命/行	身	右

東武의 四象類型의 인식의 패턴을 宋²⁵⁾은 『東武遺藁』의 「膀胱」²⁴⁾을 근거로 하여 事物心身, 天人

21) 송일병 . 동무공의 형상관과 사상의학의 형상의학 정신.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1): 7-9
 22) 이의주 송일병. 이제마의 사상철학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1): 19-22
 23) 송정모. 사상의학의 원리와 철학적 배경에 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992;4(1): 17-18

24) 『東武遺藁』 「膀胱」
 膀胱物也 腰臍身也 胸膈心也 面目事也 事即天也 物即人也 身即命也 心即性也

性命을 上下左右로 배속하여 설명하며...上下左右의 時空間的인 구도 속에서 上下의 先天的·構成的인 요소(道德)와 左右의 後天的·機能的인 요소(性命/言行, 財祿)로 요약하고, 上下의 先天的이고 天賦的인 입장에서의 道德論的·性命論的인 인간관과 左右의 後天的인 입장에서의 知行論으로 인간철학을 추구하였다고 주장한다.²⁵⁾ 이를 정리하면 Table 10.과 같다

▶李²²⁾의 論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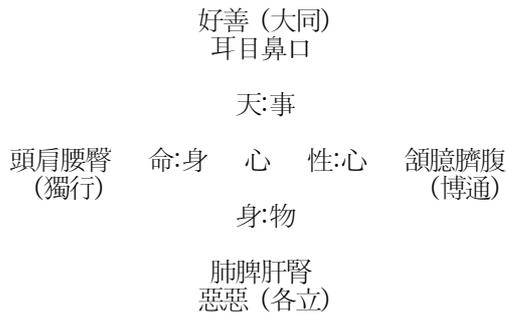


Fig 2. Lee Je-ma' Sungmyungdo(性命圖)²²⁾

李²²⁾는 『格致藁』의 事物心身を ‘八卦箴總說’으로 기준을 삼고, 『格致藁』와 『東醫壽世保元』의 연결고리로서 『東武遺藁』의 「膀胱」 근거 논리로 하여 Fig 2.와 같이 『東醫壽世保元』의 「性命論」을 『格致藁』의 事物心身に Table 11.과 같이 연결배속하여, 太極은 心, 兩儀는 性命(心身), 四象은 天性命人(事心身物)이다 라고 하였다.

Table 11. A connected attachment between Heaven-Human-Nature-Order(天人性命) and Affairs-Mind-Body-Objects(事心身物) in Song²¹⁾·Lee²²⁾·Song²³⁾

心	天(事)	事-耳 天時 心-目 世會 身-鼻 人倫 物-口 地方	大同(天)	好善之心
	性(心)	事-頷 籌策 心-臆 經綸 身-臍 行檢 物-腹 度量	博通(知)	邪心
人間	命(身)	事-頭 識見 心-肩 威儀 身-腰 材幹 物-臀 方略	獨行(行)	怠行
	人(物)	事-肺 事務 心-脾 交遇 身-肝 黨與 物-腎 居處	各立(人)	惡惡之心

天在上也 人在下也 身向左也 心向右也

25) 송일병 . 동무공의 학문과 철학사상.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3-4

▶趙¹⁹⁾의 論考

인간(太極)에게는 외부세계에 대한 개관적인 자아(天機에 대한 인식능력)와 동시에 주관적인 자아(人事에 대한 대응능력)란 상태가 공존하고 이는 상호 대응관계를 가지며, 東武는 이런 철학적 心을 五臟之心에 內在하는 性과 情으로 규정하고, 性氣는 天機의 耳目鼻口를 통하여, 情氣는 人事의 肺脾肝腎을 통하여 발휘되고 이러한 각각의 인식에 대한 차등성을 체질로 귀결하였다. 그리고 그는 天機와 人事에 대하여 자아의 노력인 慧覺(至性-知的 단련을 포함)과 資業(正命-행의 단련을 포함)에 의하여 好人之善에 대하여 我 역시 知善하고 惡人之惡에 대하여 我 역시 不行惡으로 변할 수 있다 하였다. 그러므로 心身을 具有한 인간이란 선천적 或 절대적인 性과 情, 善과 惡이 아닌 自我의 자율성인 性과 命에 의하여 개선 혹은 개악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 자율성의 경향은 太少陰陽人的 건강조건 개념으로 발전된다¹⁹⁾. 이를 정리하면 Table 12., 13.과 같다.

Table 12. A connected attachment between Heaven-Human-Nature-Order(天人性命) and Affairs-Mind-Body-Objects(事心身物) in Jo¹⁹⁾'s paper

心	天(事)	事-耳 天時 心-目 世會 身-鼻 人倫 物-口 地方	大同(天)	好善之心
	人(心)	事-肺 事務 心-脾 交遇 身-肝 黨與 物-腎 居處	各立(人)	惡惡之心
人間	命(身)	事-頭 識見 心-肩 威儀 身-腰 材幹 物-臀 方略	獨行(行)	怠行
	性(物)	事-頷 籌策 心-臆 經綸 身-臍 行檢 物-腹 度量	博通(知)	邪心

Table 13. Jo¹⁹⁾'s Argument about Heaven-Human-Nature-Order(天人性命) in modern medical opinion

太極	兩儀	四象
인간	知(정신)	天 객체로서의 나(大同으로서의 나) - 외부환경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갖는다 人 주체로서의 나(各立으로서의 나) - 나와 타인사이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겪으면서 주관적 관점을 갖는다
	行(육체)	性 나에 의해 조절되는 자율적 정신세계 命 인간의 운명적(본능적) 세계

Table 14. Differences between 『Dongyi Suse Bowon』's Heaven-Human-Nature-Order(天人性命) and 『Gyukchigo』's Affairs-Mind-Body-Objects(事心身物) following to make a connected attachment in a lump

論考	對象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과 『格致藁』의 事心身物の 연결배속			『四象草本卷』의 事心身物 ²⁶⁾
	『格致藁』의 事心身物		格致藁	東醫壽世保元	論理根據	
宋 ²¹⁾	裡理 表象					
	兩儀 四象 四象	論理根據				
	心 事 事物 身 心 心 身 物 身	『格致藁』의 八卦箴總說	心 事 天-耳目鼻口-大同 性-領臆臍腹-博通	身 身 命-頭肩腰腎-獨行 物 人-肺脾肝腎-各立	『東武遺藁』의 「勝 肱」	知 事-決-聽視言貌 心-覺-學問思辨 行 身-動-伸收放屈 物-止-意心魂魄
李 ²²⁾	상동		상동		상동	
趙 ¹⁹⁾	心 事 心	「反誠箴」 【巽箴】3-37 조문	心 事 天-耳目鼻口-大同 心 人-肺脾肝腎-各立		『格致藁』와 『四象草本卷』의 一致된 四象構造 및 現대의학적 해석	상동
	身 身 物	『四象草本卷』의 決覺動止	身 身 命-頭肩腰腎-獨行 物 性-領臆臍腹-博通			
宋 ²³⁾	趙 ¹⁹⁾ 와 같음		宋 ²¹⁾ 과 같음			상동
著者	趙 ¹⁹⁾ 와 같음		事心身物과 天人性命의 일괄적 연결배속은 무리 ²⁷⁾			상동

▶ 宋²³⁾의 論考

『格致藁』의 事心身物은 事와 心은 形而上者에 해당하고 身과 物은 形而下者에 해당한다고 보아 趙¹⁹⁾의 論考와 비슷하나, 『格致藁』의 事心身物과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에서의 연결배속은 Table 11.의 배속을 따르며 宋²¹⁾·李²²⁾ 등의 論考와 같으며 趙¹⁹⁾(Table 12.)와는 다른 시각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내용 및 Table 6. ~ Table 13.를 정리하여 비교하여 분석하면 Table 14.와 같다.

IV. 總括 및 考察

『東醫壽世保元』原理篇은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등으로 구분하고, 「性命論」에서 天人性命의 四象構造와 16人體部位를 『格致藁』에서의 事心身物の 속성을 가지고 있는 用語(‘16用語’)에 配屬하여 四象構造를 설명하고 있다. 그

러나 「性命論」에서는 아직 太少陰陽人의 四象人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즉 ‘四象人’ 과 ‘16人體部位’ 와 ‘16用語’ 에 대한 각각의 連結配屬은 아직 ‘未定の 狀態’ 이고 天人性命 四象構造는 「擴充論」에서 완성된다. 「四端論」에서는 四象人의 명칭을 ‘太少陰陽人’ 으로 규정하고 네 체질의 차등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상인의 명칭은 『格致藁』는 물론이고 「性命論」에서도 나오지 않으며 「四端論」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太少陰陽人에 대한 문구가 나온다. 「四端論」에서는 肺脾肝腎을 제외하고는 天人性命의 四象構造나 『格致藁』의 事心身物の 속성을 내포한 ‘16用語’ 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거의 없다. 「擴充論」은 「性命論」에서의 天人性命과 16人體部位와 ‘16用語’ 를 「四端論」에서의 太少陰陽 사상인에 논리적으로 결합하여 사상인의 天人性命의 四象構造를 완성한다. 우선 「擴充論」에서 四象構造論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문이 3-2, 3-3, 3-16, 3-17이고 「性命論」에 있는 四象人의 포함하지 않은 天人性命 四象構造가 「四端論」을 통하여 四象人을 명명하며 「擴充論」을 통하여 ‘四象人을 포함한 天人性命 四象構造’ 로 연결배속이 완성된다고 본다.

『格致藁』는 「儒略」, 「反誠箴」, 「獨行篇」 등 총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儒略」은 事物, 觀仁, 志貌, 天下, 四戒, 天勢, 天時, 天下索我, 我止, 土氓, 遊世箴, 大風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事心身

26) 『四象草本卷』에서이 知行과 事心身物の 배속은 모두 한결같이 일치함

27) 『格致藁』의 事心身物은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기 前 東武의 사유체계의 변천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과 『格致藁』의 事心身物을 일괄적으로 연결배속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다만 天人性命과 事心身物の 관계는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이 『格致藁』의 事心身物을 포괄하는 새로운 인식체계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본다.

物에 對한 四象構造는 「儒略事物」에 잘 나타나 있다. 「反誠箴」은 기본적인 주제로 삼았던 性命과 道德, 知行的 문제는 그대로 『東醫壽世保元』의 「性命論」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같은 것이고, 그 내용 또한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은 「反誠箴」을 완성한 해(동무57세)에 『東醫壽世保元』을 집필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참작할 때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음을 알 수 있다. 「反誠箴」에서 事心身物 四象構造를 가장 잘 설명하는 곳이 「反誠箴異箴」의 9-34 ‘八卦箴總說’과 9-37 ‘..太極心也 兩儀 心身也 四象 事心身物也.. 八卦 事有事之終始 物有物之本末 心有心之緩急 身有身之先後..’이다. 그러나 太極과 心身과 事心身物の 배속에서는 기존의 논문이나 저서에서 각각 약간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를 비교한 것이 Table 6.~Table 14.이다. 『四象草本卷』에서는 太極(人性人形)-兩儀(知行)-四象(決覺動止 舒卷進退)의 四象構造는 대부분의 논문과 저서에서 모두 일치한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서로 비교분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格致藁』에서의 事心身物の 四象構造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고 본다.

宋²¹⁾은 ‘事心身物の 四象의 形象觀’에서는 裡理에서는 ‘事心身物’ 順으로 배속하였으나 表象에서는 ‘事物心身’ 順으로 배속하여 『草本卷』의 (Table 7.)배속과는 기본구조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이를 「反誠箴」 9-37조문의 Table 6.과 비교하면 ‘事心身物’과 ‘事物心身’의 배속 차이가 난다. 李²¹⁾는 ‘八卦箴總說’에서 四象은 事心身物로 身을 축으로 天과 地가 上下로 구분되고 心을 축으로 他와 我가 左右로 구분된다. 그리하여 李濟馬는 四象을 ‘事物’의 페러다임과 ‘心身’의 페러다임을 결합하여 우주 만물의 드러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Fig 2.의 ‘李濟馬의 性命圖’에서 天人性命과 事物心身으로 연결배속하여 풀이하고 있다. 宋²³⁾은 事心身物은 氣의 분화양태에 따라 事心身物の 순서로 기체상태에서 고체상태로, 4차원에서 1차원으로 보고 또 氣의 분화상으로 事와 心은 形而上者에 해당하고 身과 物은 形而下者에 해당한다고 보아 事는 形而上, 心은 形而中上, 身은 形而中下, 物은 形而下로 표현하여 趙¹⁹⁾의 분류와 類似해 보인다. 그러나 『格致藁』의 事心身物과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에서의 연결배속

은 宋²¹⁾·李²²⁾와 같은 시각으로 분류배속하였다. 한편 趙¹⁹⁾는 事心身物이라는 四類型的 인식체계는 크게는 인간을 知(事-心)와 行(身-物)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知는 곧 事(決)와 心(覺)으로, 行은 곧 身(動)과 物(止)로 나타나고, 이와 같은 動하고 靜하는 변화를 四象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동무공의 四象은 인간을 포함한 사물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수단으로서의 四象이므로 易의 四象과는 그 의미를 달리하며, 이 논리가 의학에 적용시 知는 인간 내부의 心的 바탕인 性情의 의미가 決(性-耳目鼻口)과 覺(情-肺脾肝腎)으로 배속되고, 行은 知(頤臆膈腹)와 行(頭肩腰臀)으로 배속되어 정신과 육체의 상호 관련성을 밝히는 심신의학으로 발전한다고 하였다.

또한 『格致藁』의 ‘事心身物’과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에서의 연결배속에서도 宋²¹⁾·李²²⁾·宋²³⁾과 趙¹⁹⁾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宋²¹⁾·李²²⁾·宋²³⁾은 『格致藁』의 ‘八卦箴總說’로 기본틀을 잡고 『東武遺藁』의 「膀胱」을 논리근거로 하여 『東醫壽世保元』의 「性命論」을 Fig 2.와 같이 설명하고,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과 『格致藁』의 事心身物を 연결배속함에 ‘天-事, 性-心, 命-身, 人-物’로 Table 11.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趙¹⁹⁾는 『格致藁』의 9-37 ‘..太極心也 兩儀 心身也 四象 事心身物也.. 八卦 事有事之終始 物有物之本末 心有心之緩急 身有身之先後..’에서의 事心身物 四象構造와 『四象草本卷』의 太極(人性人形)-兩儀(知行)-四象(決覺動止 舒卷進退)의 決覺動止 四象構造를 근거논리로 하여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과 『格致藁』의 事心身物を 연결배속함에 ‘天-事, 人-心, 命-身, 性-物’로 Table 12.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여 종합한 것이 Table 14.이다.

以上에서 『東醫壽世保元』의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의 天人性命의 四象構造를 논거하고, 이어서 『格致藁』의 事心身物과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을 四象構造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사상학회지 및 주요저서에서의 구조론적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著者는 『格致藁』 事心身物에서의 心身の 분류배속은 論者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또한 事心身物の 認識體系를 『格致藁』 어느 내용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분류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格致藁』의 事心身物을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과의 일괄적으로 연결배속하는 것은 각각의 論者들의 주장이 Table 14.에서와 같이 나뉠대로의 근거가 있지만 다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東武는 『格致藁』에서 『東醫壽世保元』을 著述하기까지 많은 철학적인 시도를 한 후 철학을 의학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東醫壽世保元』을 저작하고 이때 ‘事心身物의 四象構造’에서 ‘天人性命의 四象構造’로의 새로운 인식체계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格致藁』에서는 事心身物의 인식체계로 동무의 철학을 전개하였지만 『東醫壽世保元』에서는 事心身物에 관한 어휘가 전혀 없으며 새로운 인식체계인 天人性命의 四象構造를 인식의 도구로 사용하고 또한 『格致藁』에서의 事心身物의 속성을 내포한 ‘16用語’를 필요한 부분에 인용하여 四象構造의 틀을 구성하였다. 이로 인하여 四象醫學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동안 『格致藁』와 『東醫壽世保元』의 인식체계를 연결배속하고자 하는 시도로 Table 14.와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著者는 『格致藁』의 事心身物은 『東醫壽世保元』을 著述하기 前 東武의 사유체계의 변천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과 『格致藁』의 事心身物을 일괄적으로 연결배속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다만 天人性命과 事心身物의 관계는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이 『格致藁』의 事心身物을 포괄하는 새로운 인식체계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본다.

V. 結論

以上에서 『東醫壽世保元』의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의 天人性命의 四象構造를 논거하고, 이어서 『格致藁』의 事心身物과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을 構造論적으로 비교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天人性命의 四象構造를, 『格致藁』에서는 事心身物의 四象構造를 자연과 인간을 보는 인식체계로 삼았다.
2. 『東醫壽世保元』의 「性命論」에서는 天人性命의 四象構造에 대한 각각의 설명은 있으나 사상

인에 대한 문구는 없고, 「四端論」에서 처음으로 사상인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擴充論」에서는 ‘性命論」天人性命과 16人體部位와 16用語’를 ‘四端論」의 太少陰陽 四象인’에 논리적으로 결합하여 사상인의 天人性命 四象構造를 완성한다.

3. 『格致藁』에서의 事心身物 四象構造를 배속함에 기존의 논문이나 저서에서 ‘八卦箴總說’을 근거로 하는 事物心身の 배속과 ‘9-37조문의 事心身物八卦’를 근거로 하는 事心身物의 배속에는 이견이 있다. 하지만 『四象草本卷』에서 太極(人性人形)-兩儀(知行)-四象(決覺動止 舒卷進退)의 四象構造는 모두 일치한 해석으로 이견이 없다.

4.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과 『格致藁』의 事心身物을 연결배속함에도 ‘天-事, 性-心, 命-身, 人-物’의 배속과 ‘天-事, 人-心, 命-身, 性-物’의 배속에도 이견이 있다. 이는 각각 ‘八卦箴總說과 『東武遺藁』의 「膀胱」을 논리근거로, ‘9-37조문의 事心身物八卦와 『四象草本卷』의 決覺動止의 四象構造’를 논리근거로 함으로 인하여 연결배속에 이견이 발생한다.

5. 東武는 『格致藁』에서는 事心身物의 논리로 동무의 철학을 전개하였지만 『東醫壽世保元』에서는 事心身物에 관한 어휘가 전혀 없으며 새로운 인식체계인 天人性命의 四象構造를 논리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에 『格致藁』의 事心身物은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기 前 東武의 사유체계의 변천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과 『格致藁』의 事心身物을 일괄적으로 연결배속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며, 다만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이 『格致藁』의 事心身物을 포괄하는 새로운 인식체계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본다.

VI. 參考文獻

1. 고병희 등. 사상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적 특징. 사상의학회지 1996;8(1):102.
2. 김선호 등.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3;5(1):61-80.
3. 이의주 등. 사상변증내용 설문조사지(I)의 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5;7(2):89-100.

4. 김선호 등.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표준화 연구. 사상학회지. 1996;8(1):187-246.
5. 이정찬 등.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에 대한 타당화 연구. 사상학회지. 1996;8(1):247-294.
6. 김영우, 김종원. 사상체질진단의 객관화에 관한 연구 (기준설문지를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2):151-84.
7. 김상복 등. 개정된 사상체질분류검사지Ⅱ(QSCCⅡ+)에 대한 임상적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3):15-22.
8. 허만희. 확충론해석에 대한 연구. 사상학회지. 1990;2(1):57-69.
9. 송일병 . 동무공의 형상관과 사상의학의 형상의 학정신.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1): 1-13.
10. 이의주, 송일병 . 이제마의 사상의학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1): 15-23.
11. 송정모. 사상의학의 원리와 철학적 배경에 대한 고찰. 사상학회지. 1992;4(1): 17-18.
12. 이준희 등. 이제마의 형상관의 구조적 고찰. 사상학회지. 1999;11(1):41-61.
13. 하만수 송일병. 이제마의 형상관에 대한 의학적인 고찰. 1999;11(1):25-40.
14. 임진희 등. 동무공의 지행에 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2):12-15.
15. 조황성. 사상의학의 원리와 방제. 집문당, 서울, 2003.
16. 송일병 외.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1997.
17. 지규용. 동무격치고역해. 영림사, 서울, 2001.
18. 이제마 원저. 박성식 역해. 동의수세보원사상 초본권. 집문당, 서울, 2003.